

일생성불(一生成佛)

신심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의 경애를 얻는 것이다. 어본존을 신수(信受)하고 자행화타의 실천에 면려한다면 어떠한 사람도 일생중에 불계 또는 성불이라고 부르는 경애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일생성불’이라고 하는데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서는 아주 주요한 근본원리이며 법화경이 아닌 다른 경에서는 셀 수 없는 역겹의 고행을 통해서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과 대조적이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법화경의 행지는 여설수행을 하면 반드시 일생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성불하느니라, 비유하면 봄여름에 농사를 짓는데 조만은 있을지라도 일년 중에는 반드시 이를 거둬 들이듯”(일념삼천법문, 416쪽)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은 “성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궁금해할지 모른다. 서양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처가 되거나 성불을 한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라고 하는 뜻은 ‘자각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지혜와 생명력, 용기 그리고 자비를 지닌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행복하고 충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성불이란 현재의 자신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사람이 된다거나 현실세계를 떠나 정토(淨土)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아니다.

대성인은 성불(成佛)의 “성(成)은 연다는 의의(意義)이고 법계 무작의 삼신의 부처라고 연 것이니라, 부처란 이것을 각지함을 말하고”(어서753쪽) 라고 말씀하셨다. 즉 성불이란 우리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여는 것이다. 성불이란 다른 세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현실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외부환경에도 동요되거나 지지 않는 절대적 행복의 경애를 구축하는 것이다.

어성훈에 “앵매도리의 각기의 당체를 고치지 아니하고 무작삼신이라고 개견(開見)하면”(어서 784쪽)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불이란 자기 자신이 가진 본질을 최대한 살려서 더욱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무작(無作)’이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이란 의미로 쓰인다. 이 뜻은 진정한 부처란 부처의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고 가식적이지 않으며 어떤 것도 장식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성불이란 고난과 역경에 동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생명을 정화하고 단련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불은 가다보면 언젠가 도착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묘법을 수지해서 악을 떨하고 선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며 타인의 행복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인 것이다. 이렇게 도전해갈 때 비로소 부처의 경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선유포를 위해 투쟁해가는 SGI 학회원들이야말로 부처인 것이다.

상대적 행복과 절대적 행복

도다 조세이 제 2대 창가학회 회장은 행복에는 ‘상대적 행복’ 과 ‘절대적 행복’, 두가지의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셨다. 상대적 행복이란 물질적 욕망이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희망하고 원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는 반면에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질 수 있을지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그것을 얻게 되어 느끼는 만족감은 지속되지 않는다. 주어진 상황에서 노력과 계획을 잘하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좋아하고 생각했던 행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성립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복도 바뀐다. 전적으로 외부의 요인에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 행복이라고 한다.

반대로 절대적 행복이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며 즐거운 것이다. 행복이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고 하는 경애를 말한다. 외부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부른다. 성불이란 절대적 행복의 경애인 것이다.

인생에서 흔히 겪는 고민 외에 가끔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 행복이란 문제의 유무(有無)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른다. 등산을 예로 든다면 그다지 체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은 경사가 있는 산등성이를 보고는 겁을 내고 올라가기 힘든 장애로 볼 것이다. 그러나 체력과 경험이 있는 산악인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을지라도 경사진 산길을 유유히 오를 것이다. 이처럼 절대적 행복경애를 확립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 닥치더라도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강한 생명력을 불러일으켜 역경

을 유유히 이겨낼 수 있다. 강인하고 경험많은 산악인은 산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그것을 극복하는 환희를 느낄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곤란도 극복해 갈 수 있는 생명력과 지혜를 몸에 지닌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가득한 현실사회야말로 충실하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장(場)이 될 것이다.

이케다 SGI 회장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행복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립하는가에 있다… 행복이란 외관이나 허영 안에서 찾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생명의 실감이 문제인 것이다(친애하는 미국의 벗에게, 제2판, 478-79쪽). 게다가 상대적 행복에 속하는 소유물, 인간관계 또는 처한 상황 같은 것은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반면에 절대적 행복인 부처의 경에는 생사를 넘어 영원히 생명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